

'3퇴'와 평안

제 284기 2017년 4월 29일

2017년 4월 23일까지 해외 대기원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중공의 당, 단, 대 조직 탈퇴를 성명한 인원:

2억 7,072만 명

마카오 파룬궁 수련생 '4·25'청원 18주년 기념, 여행객은 '3퇴'

[명혜망] 2017년 4월 22일, 마카오 파룬궁 수련생들이 성도미니크 성당 앞 보행자 도로에서 파룬궁 수련생의 '4·25' 평화 청원 18주년 기념활동을 거행했다. 이들은 동시에 대륙 중국인들이 중공을 위해 일생을 바치겠다고 한 맹세를 지우고 아름다운 미래를 선택할 수 있도록 '3퇴(퇴당, 퇴단, 퇴대)'를 호소했다.

대륙 여행객들은 눈길을 보내면서 동행자에게 말했다. “마카오의 언론자유를 중국에서는 볼 수 없어.” 어떤 사람은 말했다. “곳곳에 모두 파룬궁이 있네.” 어떤 사람은 현수막의 내용을 읽었다. “파룬따파 하오(法輪大法好)!” 수많은 여행객은 대륙에서 보지 못한 놀라운 광경을 접하고 휴대폰과 카메라를 꺼내어 사진을 찍었다.

상하이에서 온 한 여행객은 당원이었는데, 파룬궁 수련생이 그에게 말했다. “공산당은 살인방화 같은 나쁜 일을 너무나 많이 했어요. 당신은 공산당이 저지른 죄를 뒤집어 쓸 필요가 없어요. 자신의 타고난 복을 지키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는 파룬궁의 진상을 들었고, 천안문 분신자살 사건이 중공의 조작극이라는 이야기를 모두 들었다. 그는 파룬궁 수련생이 가명으로 '3퇴'하는 것을 도와줄 때 큰 소리로 찬성한다고 말했다.



사람들은 파룬궁 진상 알기를 갈망한다. 진상을 알려는 사람들은 한 무리가 가면 다시 한 무리가 온다. 많은 행인이 진상판과 현수막을 보고 있다.

병원 안의 250~260명이 '3퇴'하다

[명혜망] 갈수록 많은 중국 국민이 중공(중공과 중국은 다르다)의 사악한 본성을 깨닫고 '3퇴(국의 탈당 사이트에서 퇴당, 퇴단, 퇴대 성명 발표)'를 선택하고 있다.

전직 현금시의 부처급 간부가 '3퇴'하다

[지린 투고] 그날 오후 나는 한 유원지에 갔다가 78세된 노인을 만났는데, 그는 원래 한 현금시의 부처급 간부였고 노 당원이었다. 내가 그에게 물었다. “'3퇴'하여 평안을 보전한다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그는 들어본 적이 있다고 말했다. 내가 물었다, “그럼 탈퇴하셨나요?” 그는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래서 나는 그에게 파룬궁(파룬따파)이 불법(佛法) 수련이며, 이른바 '천안문 분신자살'은 장쩌민 집단이 조작극을 만들어 파룬궁을 모함하고 백성을 속여 파룬궁을 증오하도록 선동한 것이고, 파룬궁 박해를 위해 여론을 조작한 것임을 알려 주었고 또 현재 파룬궁이 세계 백여 개 국가와 지역에 널리 전파되었다고 알려주었다.

그는 아주 진지하게 듣더니 예의를 갖추어 나에게 앉으라고 말했다. 그는 애초에 파룬궁이 자신의 현에도 전해져 아주 많은 사람이 수련을 했다며 “나는 항상 파룬궁이 아주 좋다고 생각했어요. 병을 제거하고 몸을 건강하게 하고, 사람들을 진(真), 선(善), 인(忍)에 따라 좋은 사람이 되도록 하고, 국가와 국민에게 모두 좋아서 당시에 수많은 사람이 파룬궁을 좋게 봤어요. 장

쩌민은 왜 반대할까요? 당치 않아요.”라고 말했다. 그는 나에게 물었다. “리훙쯔 선생님은 아직 미국에 계세요?” 나는 그렇다고 말했다. 그는 또다시 사부님께서 몇 년도에 출국하셨는지 물었다. 나는 그에게 우리 사부님께서 1995년 국내 전수를 마치고 얼마 되지 않아 외국에서 법을 전수하시다가 미국에 정착하셨고, 우리 사부님은 전 세계인을 구도하신다고 알려주었다. 이야기가 여기에 이르러 내가 조금 격동되었는데, 그는 또 시진핑이 파룬궁을 박해하느냐고 물었다. 내가 말했다. “아니요. 시진핑은 박해를 안 합니다. 시진핑은 노교제도(노교소는 장쩌민 집단이 파룬궁을 박해하는 주요한 도구 중 하나였다)를 폐지했고, 장쩌민의 파룬궁 박해를 도운 앞잡이 저우융강, 보시라이와 전문적으로 파룬궁을 박해한 610 사무실 두목 리동성을 처벌했습니다.”

여기까지 들은 그는 깨닫게 되었고, 자신 있게 말했다. “내가 보기엔 시진핑이 나중에 리훙쯔 선생의 귀국을 영접해야 할 겁니다.” 나는 엄지손가락을 세워 그를 칭찬하며 말했다. “그 날이 올 겁니다.”

나는 그가 진상을 안 것을 보고 그에게 물었다. “이번에 '3퇴'에 동의하셔야겠지요? 제가 가명도 지어 드리면 좋을 거예요. 이지(理智)라고 하면 괜찮을까요?” 그는 아주 진지하게 듣고 “이지”라고 되뇌더니 말했다. “좋아요! 좋아요!”

헤어지기 전 나는 또 그에게 파룬궁 진상 자료를 주면서 “파룬따파 하오(法輪大法好), 찌싼런 하오(真善忍好)”를 늘 외우면 복과 평안을 얻을 것이라고 알려 주었다. 또 그에게 파룬궁 진상을 가족과 친구들에게 알리면 그들도 구도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병원 안의 250~260명이 '3퇴'하다

[대륙 투고] 나는 임상 의사다. 나는 항상 동료들에게 파룬궁 진상을 알리고 '3퇴'하여 평안을 보전할 것을 권한다. 지금은 병원의 250~260명이 파룬궁 진상을 깨달아 '3퇴'에 동의했다. 70여 명의 크고 작은 간부가 모두 나의 파룬궁 진상을 들었고 다수가 '3퇴'하여 평안을 얻는 길을 선택했다. 병원 주변에서 장사를 하는 많은 사람도 '3퇴'를 선택했다. 현재 그들 중 어떤 이는 파룬궁 진상이 찍힌 지폐를 사용하고, 어떤 이는 파룬궁 진상이 찍힌 탁상 달력을 사무실에 놓았다. 어떤 이는 파룬궁 진상 자료 배포에 참여하며, 많은 사람은 다 읽은 파룬궁 진상 자료를 전한다. 그리고 “파룬따파 하오, 찌싼런 하오” 아홉 글자를 늘 외우는데, 그들은 여러 가지 복을 받았다.

예를 들어 우리 수간호사의 딸이 소학교에 다니다 반복해서 경기를 일으켰는데, 나중에 온 가족이 “파룬따파 하오, 찌싼런 하오” 아홉 글자를 외운 후로는 딸의 증상이 완치되어 재발하지 않았다.

18년 전의 '4·25' 만 인 평화 상방

어떤 사람은 1999년 4월 25일의 10,000인 평화 상방이 중공의 파룬궁 박해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사실은 그렇지 않다. 중공은 1996년 광명일보의 여론공격을 시작으로 사전 모의에 따라 계통적으로 파룬궁에 대한 탄압을 실시했다. 파룬궁 서적 출판금지를 시작으로 중공의 장쩌민, 위구간 패거리의 주룽지 국무원 총리의 파룬궁에 대한 긍정적인 서면지시를 묵살했다. 1998년 7월 공안부는 내부적으로 파룬궁을 'X교'로 결정한 이후 도처에 특무를 파견해 '죄증'을 수집했으나 소득이 없자 또다시 공안을 동원해 연공하는 수련생을 해산시키고 불법으로 재산을 몰수했다. 이렇게 3년 동안 계속해서 탄압의 수위가 높아졌다. 마침내 경찰이 불법으로 파룬궁 수련자를 구타하고 체포한 '텐진사건'으로 인해 '4·25' 파룬궁 수련생 만 명 평화 상방이 발생했다.

텐진사건

1999년 4월 11일, 중공 두목 위구간의 동서인 허쥔슈가 텐진교육대학 잡지에 파룬궁을 공격하는 문장을 실었고, 4월 18일부터 24일까지 일부 파룬궁 수련생이 텐진교육대학과 관련 기관에 실제 상황을 알렸다. 23일과 24일, 텐진시 공안국이 방폭경찰을 동원해 파룬궁 수련생을 구타하고 불법으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수련생들이 피를 흘리고 부상을 입었으며, 45명이 체포됐다. 텐진시정부는 베이징의 명령에 따른 것이라 주장했고, 파룬궁 수련생들에게 공안부가 이번 사건에 개입했고, 베이징에 가야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알려 주었다.

상방 경위

4월 25일, 파룬궁 수련생들은 정부에 대한 믿음을 품고 법에 따라 국무원 신방사무실에 도착해 평화롭게 상방을 하면서 파룬궁 수련생 석방과 여유로운 수련 환경, 파룬궁 저서의 합법적 출판 등을 요청했다. 당시 총리 주룽지는 수련생 대표와 면담한 후 즉시 텐진 공안국에 명령을 내려 체포된 파룬궁 수련생을 석방하게 했고 국가가 국민의 수련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1999년 4월 25일, 만 명이 넘는 파룬궁 수련생이 평화 상방에 나섰다. 이들은 당국을 향해 파룬궁의 진실한 상황과 막 발생한 텐진 공안의 파룬궁 수련생 폭력 체포 사건을 반영했다. 전체 청원 과정에서 질서가 양호했고 교통이 정연했다. 이들이 떠난 후 땅 위에는 종이조각 하나 없었고, 경찰이 버린 담배꽂초까지 그들이 말끔히 치웠다. 한 경찰은 감탄하며 말했다. “보라, 이것이 바로 덕(德)이다!”

는 정책을 재확인했다. 저녁 8시가 넘어 텐진 쪽에서 체포된 파룬궁 수련생을 석방했다는 소식을 들은 수련생들은 조용히 해산했다.

4·25 사건은 중공 정권수립 이후 정부와 일반 시민이 평화적인 대화로 모순을 해결한 선례를 남겨 전 세계를 놀라게 했다. 국제 언론은 이를 높이 평가하면서 “중국 상방 역사상 가장 규모가 크고 가장 이성적이고 평화로운 상방”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 일체는 오히려 장쩌민을 극도의 질투와 두려움에 빠지게 했다. '6·4' 학생의 선혈을 밟고 집권한 장쩌민은 중공의 '계급투쟁'이라는 변이된 사유로 문제를 보는 데 습관이 들어 있었고, 파룬궁 수련생의 평화 상방이 정부에 대한 신뢰임을 보지 못하고 반대로 당에 대한 '시위'라고 주장했다. 그날 밤 장쩌민은 평화 상방을 '중난하이 포위공격'으로 중상했다. 그리고 1999년 7월 20일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무시하고 혼자서 파룬궁에 대한 전면적인 박해를 시작했다.

상방은 '정치행위'가 아니다

역대 운동 중에서 중공은 누군가를 타격하려 할 때 그에게 먼저 몇 개의 '모자'를 씌웠다. 중공이 파룬궁을 탄압하려 하지만, 날조된 몇 가지 죄명도 없다면



상방하는 군중이 거리를 사이에 두고 바라보는 곳이 바로 중난하이의 붉은 담장과 중난하이의 서문이다. 중앙 텔레비전이 방송한 현장화면 속에서도 시위 중에 흔히 볼 수 있는 흥분한 군중과 표어가 없었고, 구호도 없었다. 아주 분명하게 상방 군중은 중난하이를 포위하지 않았고 나아가 이른바 '충격' 사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이른바 '중난하이 포위공격'이라는 중공의 거짓말은 스스로 무너져 내렸다.

누가 따를 수 있겠는가? 파룬궁 수련생이 '4·25' 평화 상방으로 지키려 한 것은 '진(真), 선(善), 인(忍)'에 따라 좋은 사람이 되고 신체를 건강하게 하는 기본 권리였다. 이는 중공이 정의한 정권을 뺏기 위해 '정치를 하는 것'과 전혀 관계가 없었다.

중공이 박해하는 근본 원인은 '좋은 사람이 너무 많아진 것'

박해가 시작된 지 7년 후 출판된 '장쩌민 문선'에는 중공이 파룬궁을 박해한 진정한 원인이 폭로되어 있다. 장쩌민은 1999년 4월 25일 저녁, 정치국에 보낸 서신에서 솔직하게 파룬궁의 신속한 발전과 민심에 대한 응집력에 우려를 표했고, 파룬궁이 민심을 놓고 당과 쟁탈한다고 주장했다.

파룬궁은 불가 수련공법의 일종으로서 누구와 민심을 쟁탈할

싸워 이길 생각도 없다. 그러나 현재 도덕이 없어지고 당의 관리들이 부패하고 음란해진 사회 속에서 '진(真), 선(善), 인(忍)'을 기본 원칙으로 삼는 파룬궁은 한 줄기 맑은 샘물과 같고 사람들의 건문을 새롭게 한다. '인심이 선을 향하는 것'은 본성이 지향하는 바이며 이것이 이른바 '응집력'일 것이다. 이렇게 보면 이번 박해의 발단과 '4·25' 평화 상방은 전혀 인과관계가 없다. 중공이 파룬궁을 박해하는 최종 원인을 명백히 말하면 '연공인이 너무 많다'는 것 뿐 아니라 '좋은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많은 국민이 '진(真), 선(善), 인(忍)'을 실천해 일체의 바르지 못한 것이 모두 폭로되자 거짓말과 폭력에 의존하는 중공 정권이 안절부절 못하다가 무대 앞으로 뛰어나와 대판 싸움을 벌인 것이다.



2002년 6월 구이저우에서 발견된 '장자석' 단면에 '중국공산당망'이란 6개의 큰 글자가 나타나 '천멸중공(天滅中共)'이라는 천기(天機)를 알려 주고 있다.